

■ 나

불연기연(不然其然)과 성사재인(成事在人)

Buryeon-giyeon and Seongsajaein

연구개요 및 목적

- 연구 배경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은 한국 근대 종교사상 발전의 주요 축으로, 두 사상의 인간관 비교 연구는 한국 사상사 이해에 필수적입니다.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학과 대순진리회 사상의 핵심인 인간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사상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데 있습니다.

- 연구 방법

불연기연(不然其然)과 성사재인(成事在人) 개념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와 비교분석을 통해 두 사상의 인간관 특성과 차이점을 고찰합니다.

핵심 질문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에서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은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며, 이것이 현대 사회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핵심 개념 소개: 불연기연·성사재인

○ 불연기연(不然其然)

현재 이해되지 않는 **불연(不然)**이 수도나 경험을 통해 **기연(其然)**으로 전환됨을 의미

- 동학사상에서 인간으로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도 언젠가 수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개념
- 신명계를 도입하지 못한 동학사상에서 신인조화를 표현하는 방식

☞ 성사재인(成事在人)

일의 성패 결정권이 **천(天)**에서 **인간(人)**으로 이양된 대순사상의 중심 개념

- 선천: "모사(謀事)가 재인(在人)하고 성사(成事)는 재천(在天)"
- 후천: "모시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 - 구천의 인신강세 이후 결정권의 위치 변화

💡 핵심 차이점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인간관의 결정적 차이는 **성사재인**에 있으며, 이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 확립을 의미합니다

동학사상의 인간관

▲ 천외천(天外天) 개념

인간을 우주의 중심이자 천(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존재로 봄

- 하늘 밖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의미로 인간의 변화와 가능성 강조
- 인간 내부에 천성(天性)이 있어 스스로가 하늘임을 강조

☞ 기(氣) 중심 사상 체계

신명 개념보다 기(氣)와 기운을 중심으로 한 인간관 전개

- 동학사상에서는 "싸움이 결정되는 것은 기운"임을 강조
- 신명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 형성

“ 불연기연(不然其然)

“인간으로서 이해가 어려운 불연(不然)이란 부분도 언젠가는 수도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기연(其然)이 된다”

- 신명계를 도입하지 못한 동학사상에서 신인조화를 표현하는 방식

대순사상의 인간관

인간 중심의 세계관

구천 인신강세 이후 천지신명의 역할이 약화되고 **인간의 자율성과 주체성**이 강화됨

- 인간을 음양오행의 중심 **토(土)**로 자리매김하여 신인조화 체계의 핵심 역할 수행
- 몸속에 갇힌 신이기에 내부의 신을 깨워 외부의 신과 소통 가능

구천 인신강세(九天人神降世)

최고신의 인간 몸으로의 강림이 인간과 신명의 위치를 바꿈

- "신명은 비겁(否劫)에 빠지고 인류는 재겁(災劫)에 빠졌기" 때문에 인간 중심의 세계관 확립
- 인간은 신명보다 몸이라는 실체를 가진 점에서 불완전하나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짐

성사재인(成事在人)

일의 성패 결정이 이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짐

-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 - 전경, 교법 3-35
- 인간을 통해 천지가 성공하는 개벽의 원리로서의 신인조화 확립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전경, 교법 1-54)에서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으로 패러다임 전환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비교 분석

☼ 동학사상

신명 개념

신명 개념이 미약하고, 기(氣)와 기운 중심의 사상 체계

음양오행 운용

음양오행의 운용에서 토(土)가 신명의 역할을 함

핵심 표현

불연기연(不然其然) -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수도를 통해 이해 가능

인간관

천외천(天外天) 개념을 통해 인간의 변화와 가능성 강조

● 대순사상

신명 개념

신명과 인간의 위상 변화를 명확하게 제시

운용 구조

인간 중심의 재화/운용구조 확립, 신인조화 체계 강화

핵심 표현

성사재인(成事在人) - 일의 성패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음

인간관

구천 인신강세 후 인간의 주체성과 자율성 강조

핵심 차이점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의 결정적 차이는 **성사재인**에 있으며, 이는 인신강세 이후 천지신명이 아닌 인간이 천하사의 주체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신인조화와 음양오행 원리



신인조화의 원리

대순사상에서 인간(양)과 신명(음)은 음양합덕의 원리로 조화됨

- 인간은 몸을 가진 실체로서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함
- 신명은 진리에 지극하나 한 방향만을 가지고 있음



음양오행의 작용

금화교역(金火交易): 상반된 기운(금과 화)의 교환을 통한 조화

- 토극수(土克水): 인간(토)이 신명계(수)를 제어하는 원리
- 인간은 음양오행에서 중심인 토(土)로서 신명의 기화(氣化)를 조리(調理)함



신인조화와 성사재인의 관계

대순사상에서 개벽은 천지가 성공하는 것으로, 이는 도통군자의 배출 이후에 가능한 인존의 도통진경 세계입니다. 신인조화는 인간을 통해 천지가 성공하는 개벽의 원리가 됩니다.

인간(토)의 조리(調理)와 신명의 기화(氣化)의 상호작용

인간(土)



신명

결론 및 의의

■ 연구 결과 요약

-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인간관은 불연기연에서 성사재인으로 발전
- 대순사상은 동학사상에 비해 상관적 사유의 확대와 프랙탈 사유가 강화됨
- 인간과 신명의 위치 변화는 구천의 인신강세를 통해 이루어짐

🏛 학술적 의의

- 한국 종교사상의 인간관 변화 과정 조명
- 신인조화(神人調和)의 철학적 의미 확장
- 근대 한국 종교사상의 자생적 특성 발견

💡 현대적 함의

- 인간 주체성과 책임의식 강화에 기여
- 현대 사회에서의 리미널리티 회복 방안
- 동양 전통사상의 현대적 재해석 가능성

▶▶ 향후 연구 제안

성사재인(成事在人)의 현대적 적용 방안과 신인조화(神人調和)의 실천적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 종교사상이 지닌 동서양 문화의 통합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V-4. 동학사상과 대순사상 천지관계의 자생적 근대성 비교

천지귀신(天地鬼神)과 천지성경신(天地誠敬信)
도기장존(道氣長存)과 상생(相生)

연구자: [발표자 이름]
[소속 기관]

발표일: 2025년 6월 21일

연구 개요 및 목차

본 연구는 동학사상과 대순사상의 천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사상사에 나타난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연구입니다. 특히 천지귀신과 천지성경신, 도기장존과 상생이라는 핵심 개념의 비교를 통해 두 사상의 자생적 근대성의 특징과 의의를 고찰합니다.

주요 내용

1. 천지귀신과 천지성경신 개념 비교
2. 동학사상의 천지귀신론
3. 대순사상의 천지성경신론
4. 도기장존과 상생 개념 분석
5. 서양에 대한 인식 차이
6. 일본에 대한 관점 비교
7. 결론 및 자생적 근대성의 의의